



# 제 1 회 아시아

## 汎基督教 保健調査活動 참가보고



金 在 浩

(가톨릭 醫大 副教授)



지난 8월 4일부터 9일까지 한주일 동안 자유 중국(臺灣)의 이란현 난아우(宜蘭縣 南澳)에서, 처음으로 韓·中·日의 제 1차 아시아 범기독교 연합공중보건 조사활동(Asian Ecumenical Public Health Survey for Rural Area of Taiwan)이 실시되었으며, 여기에 한국 가톨릭의 학생의 인솔교수로서 본인이 참석하고 돌아온바 있으므로 그간의 경과보고와 함께 몇가지 느낀 점 등을 기술하기로 한다.

### 臺北에 도착하고

이래서 드디어 8월 3日(金) 오후 1시에 김포 공항에서 친지들과의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KAL 기에 몸을 싣고 일본 大阪경유 대만의 臺北국제 공항에 도착하니 벌써 무더운 남국의 熱氣를 느낄 수 있었고, 공항에는 본활동의 집행비서인 Dr. Wu(吳 震春; 대만기독교의사회장)와 가톨릭측의 고문 스미츠神父(Rev. Bartley F. Schmitz, 現 중화민국 천주교병원협회 집행비서)와 그의 여비서(Miss Chen)가 마중나와 우리 一行을 따뜻이 환영해 주었고, 이어서 중국 야외식당으로 안내되어 처음으로 중국요리의 진미를 맛보았던 것이다.

### 출국수속

출국 예정일 바로 한달전야야 비로서 초청장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때부터 병역 미필자인 의대생 10명을 포함한 어려운 출국수속이 서둘러 진행되었으며, 이래서 연세의대와 가톨릭의대의 인솔교수단은 문교부에서 병무청으로 다시 외부부로..... 동문서주하여야 했고, 책임지고 전원 귀국하겠다는 각서까지 써서 제출하는 등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 하나 잘 풀려서 드디어 출발 바로 전날인 8월 2日 오후 4시 30분야야 비로서 공무여행 수속관계로 몇일 늦게 오신 유기형 단장만 제외하고는 전원의 여권이 발급되었으며, 이를 갖고 중국대사관으로 직행하여 마침 퇴근할려는 직원들을 붙잡고 간청하여 간신히 비자를 얻고 나서야 비로서 정말 내일 출발하는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던 것이다.

저녁 식사 후 우리 일행은 여독을 풀 시간도 없이 다시 公衛示範센터로 안내되어 고문 Dr. Chen(陳拱北; 대만국립대학, 예방의학교수)이 베푸는 다과회에 참석하였는데, 여기에는 이미 자유중국팀과 일본팀이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며, 처음으로 三國의 팀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서로간의 인사교환이 있었고, 또 앞으로의 계획, 일정에 대한 계획표전달 등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비로서 우리들의 프로그램이 어떻다는 것을 대략 알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대북에서 첫날밤은 민박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특히 가톨릭팀(한국 5명, 일본 1명)은 조금 떨어진 新店14張中央新村五街 104號에 있는 가톨릭교의 종합병원인 天主敎耕華醫院

의 의사숙직실에서 숙박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스미츠신부가 직접 운전하는 VW미니백스를 타고, 그곳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인 동시에 중화민국천주교병원협회 이사장이기도 한 Dr. Ting(丁大田)의 안내를 받으면서 도착하니 벌써 밤 12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본활동에 참가한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측으로는 단장 유기형 교수(부산의대)를 비롯하여 문영일 조교수(연세의대 이비과), 김홍복 부교수(연세의대 안과)와 김명호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 본부교문 자격) 그리고 가톨릭 측에서는 李淵台 조교수(가톨릭의대 미생물학)와 본인(김재호, 가톨릭의대 안과 부교수)이 참석하였으며 대학생으로서는 연세의대의 손희영, 황선호, 김병곤, 연세치대에서 정문규, 최재덕, 이화의대에서 서명희 부산의대에서 변원탄, 가톨릭 醫大에서 曹龍鉉, 金仲植, 方振聲군 등 도합 16명이 참가하였고, 그밖에 日本에서 5명, 臺灣에서 31명 등 모두 52명의 인원이 참가하였던 것이다.

Table 1: Distribution of Participants

Nations	Korea		Japan		Taiwan		Total
	C	P	C	P	C	P	
Doctors	2	4		2	1	4	13
Cath. Rev.					1		1
Students:							
Medical	3	7			2	14	26
Non-medical					2	1	3
Nurses				2	1	4	7
Medical service			1		1		2
Total	5	11	1	4	8	23	52

C: Cathiic. P: Protestants

### 臺灣에 대한 몇가지 지식

우리 팀이 도착한 대만은 中國大陸의 東南海上에 자리잡고 있으며 위치는 북위 21°45~25°38, 동경 119°2~122°6로서, 本島의 면적은 35,761평방키로 로서 우리나라의 1/3보다는 약간 큰 편으로서, 人口는 약 1,500만인데 비하여 醫師數는 2만이 넘으며(한국 1,6000여명), 가톨릭 信者의 數는 30만이 넘는 것으로(한국 80여만명)

이는 지난 20년간에 급증한 것으로 대만의 구석 구석에 성당이 세워져 있다. 현재 17敎派에 속하는 732명의 神父와 41敎省에 속하는 792명의 修女가 傳敎에 힘쓰고 있거니와, 과거 11년간에 신부가 있는 敎會는 15個所에서 370個所로 늘어났고, 附設기관으로서는 病院이 12個所, 診療所가 128個所, 高校 15, 工業學校 2, 綜合大學 1個所가 있다.

원래 대만은 1206년이래 중국의 보호령이 되어서 16세기경에는 많은 漢人들이 이주 하였으며, 1683년에는 정식으로 중국의 관도로 들어가 1885년에 그의 一省으로 되면서 부터 점차로 產業 交通 敎育 등 각방면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1895년 淸日戰爭의 패전으로 맺어진 下關係約에 의하여 일본에게 양도하고 말았으며, 이때 臺南에 있던 정치적 중심지를 臺北(현재 인구 200만)으로 옮겨 총독부를 두었으며, 1945년 세계 제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게 됨에 따라 50여년간의 일본 통치하에서 해방되어 다시 중국의 영토가 되었고, 또 중국내전결과 1947년부터 국민당정부의 대만 환도로 인하여 중국 본토에서 2백여만의 外省人이 건너 오므로서 현재 대만의 독특한 중국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언어에서 특히 그렇다. 산속 구석 구석에 산재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이들 山地人들은 무려 9族(타이어, 아미, 사이세트, 부논, 초우, 파이완, 야미, 루카이, 피난)이나 되며, 이들 모두가 역시 제각기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사람들과의 회화에는 일본어가 유일한 공용어로 되다 싶히 되었으며 젊은 이들은 학교에서 표준어(北京語)를 배우면서 또 대만어도 간혹 혼용되는 수가 있어서 TV에는 지금도 표준어 자막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벼농사는 북쪽은 二毛作, 남쪽은 三毛作을 하며, 식량의 위협은 없다. 1973년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美貨446달러가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극동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인것이다.

### 山地人들에 대한 公衆保健調查活動

8月 4日 아침, 韓中日팀 全원은 관광巴士를

타고 목적지인 이란현 난아오(南澳)로 향하였으며 험준한 산을 넘어서 약3시간 후에 宜蘭市에 도착하니 縣廳앞에는 亞洲基督徒聯合公共衛生工作團 歡迎이라는 프레카드가 걸려있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TV신문기자들의 카메라 후레쉬 공세를 받으면서 簡聰堯위생국장이 배푸는 간단한 다과회 환영파티에 모두 초대를 받았으며, 이어서 점심식사를 한후 다시 배스로 蘇澳(Su-Ao)에 닿으니 여기서부터는 一方通行이라 부득히 오후 4시까지 기다린 후에야 비로서 해변가의 절벽바위 중턱에 좁은 길을 만든 험준한 蘇花公路를 따라 목적지인 南澳(난아오)에 도착하니 저녁 5시가 넘었다.

인구 5,000여명의 南澳에는 현재 醫師 한명이 근무하고 있는 保健所와 聖母無原罪傳教修女會에서 경영하는 天主敎病院(40 beds, 內外, 小産科)이 있는데 여자팀15명은 모두 천주교병원에 투숙하게 되었고 남자팀은 역시 천주교에서 경영하는 유치원에 여장을 꾸니, 그간 초행의 고달픈 여행과 더위에 지쳐있었다. 단 1시간의 휴식도 없이 우리 일행은 다시 지정된 시골식당으로 안내되어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우리가 난아오에 체류하는 동안 줄곧 이곳에서 하루 세끼를 먹었던 것이다.

식사후 7시부터 3시간반 동안은 모두 함께 공회당에 모여서 서로 사귀고 친숙해지기 위한 오락회가 있었으며, 이러한 타이트한 스케줄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묵고 있던 침소는 원래 유치원사무실로 서작은 한칸방에는 연세대의 문영인, 김홍복 및 가톨릭의대의 이연태, 제교수와 본인이 함께 투숙하였고, 그 건너방에는 일본팀(젊은 회원), 그리고 옆은 두칸반 정도의 큰방에는 韓中 남학생들이 투숙했었는데 불편하기 이럴수 없었고, 돌자리 바닥에 홀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누우면 개미떼, 모기떼의 습격을 받아야 했고, 더위도 선풍기는 고사하고 부채하나 구할수 없었으며, 더욱이 산에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샤워실이 두군데 있었으나 제대로 가동이 안되었고, 때로는 소나기때문에 흠탕물인때도 있었으나, 대식구가 함께 목욕을 하고, 또 세탁까지 하자니 저녁마다 불편이 있었던 것이다.

난아오에서 우리팀의 日課는 대체로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아침기도회, 7시에 아침식사, 8시에 공회당에 모여 하루의 활동 분담량을 받아가지고 산지인촌락 방문 보건실태조사활동, 12시에는 돌아와서 점심하든가, 아니면 갖고간 도시락으로 점심식사, 그후 오후 활동을 마치고 돌

Table 2: Nan-Ao(宜蘭縣南澳)

Area: 1,650 sq. km(among about 36,000 sq. km of Taiwan)

Population: 4,902 (among about 15,000,000 of Total Population)

95% of them: Taiyia tribe

Health Station: 2 M.D., 2 nurses, 2 health workers and 1 lab. technician.

Total no. of Health stations in Taiwan: 362

Causes of Death in Nan-Ao:

Accidents esp. traffic(Motor bike)

Pneumonia, Tbe pul., Heart disease(rheumatic or congenital)

Caners, Suicide, G-I infection, Liver disease, CVA, meningitis

Activity of Nan-Ao Health Station: Chief projects are as follows:

1. OPD clinic for out patients care
2. Preventive; vaccinations
3. Tbe control; X-ray, sputum, culture etc
4. Vd control; srological, medication
5. Malaria
6. Trachoma 7.68% in 1970-71
7. Environmental hygine
8. Drug control; police, administration
9. Family planning; 60% for contraceptive pills, 30% no-plan
10. School hygine;

Birth rate at Nan-Ao: 140 (3.03% in 1968)-83 (1.67% in 1972)

Mortality rate: 1.53%(75 in 68)-0.61% (33 in 1972)

아와서 7시에 저녁식사 8시에는 저녁모임, 10시 30분에 취침……, 이런 순서였고, 첫날의 아침 기도는 가톨릭의 스미츠 신부님이 주관하였으며 다음날은 중국팀 일본팀 한국팀의 프러테스탄트에서 하는 등 異床同 夢격인 친구교가 서로 이해하고 협동하는 교회일치의 좋은 본보기이기도 하였다.

마침 8월 5일은 일요일이라 가톨릭팀 10여명은 천주교병원내 성당에 모여 스미츠 神父님이 하시는 미사에 참석하였으며, 미사후 그곳 서양 수녀님들과 함께 기념촬영과 다과회를 하는 등 즐거운 우리들의 모임을 갖은 때도 있었다.

그날 오전에는 이곳 保健所長인 Dr. Lim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내용의 개요는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곳에서의 활동은 주로 주위 50리 내외의 산속 구석구석에 모여살고 있는 山地人(타이아族)들의 가정을 戶戶訪問하여, 그들의 보건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내용은 양케트식으로된 인쇄물 4枚(Family Form, Individual Form, Form for Housewife 및 House head & Preschool children Form)를 모두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구가 많은 가정에서는 한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하였다. 더욱이 초행인 우리들에게는 안내원이 없었고, 또 간신히 번지를 찾아가면 사전연락이 없되어 있는 탓으로 주인들은 농토에 나가 없어서 몇번씩 헛탕치기도 하였다. 또 언어가 특유하여 유일한 공용어는 일본말뿐이므로, 가끔적이면 한組에 한국, 일본, 중국이 골고루 배정하도록 하였고, 방문할 때마다 구제회에서 얻은 미국제 종합비타민(20알) 한병과 세수수건 한개씩을 선물로 주어서 미리 환심을 얻은 다음에 조사를 실시했던 것이다. 환자가족이 있을 때에는 진찰권을 주어서 공회당에 차린 임시진료소에서 무료진료를 받도록 알선까지 해주었던 것이다.

이들 山地人들은 대만에서도 가장 가난한 貧民들로서 개중에는 세멘트 콘크리트건물을 짓고 잘사는 사람도 있으나, 대개는 나무판자 초가집 속에 은거하며 한구석은 부엌, 다른 구석은 마루를 깔아서 침실로 사용하여 온 식구가 같이 한방구석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흔하게 보급된

TV, 냉장고 및 오토바이도 그들에게는 차폐가 없었으며 고작있는 것이 자전거, 라디오 정도였으나,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시골구석까지 길이 포장되었고, 전기가 들어오고 있었다.

농업이 주업인 이들 산지인들은 흔히 5,6명의 자녀를 갖고 있었으며, 아직 피임법의 상식이 부족하여 원만한 가족계획이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듯 하였고, 위생적인 상식이 없는 탓인지 어린이들은 흔히 피부염 투성이였고, 간혹 안질(트라코마)환자, 또 성인에서는 위장병, 폐결핵, 피부병 신경통 등의 만성질환으로 흔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개는 인근천주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독실한 가톨릭신자들이었다.

자주 빨지 안아서 매물은 남루한 옷, 저장 탱크가 있는 공동변소, 산에 내려오는 물줄 받아서 끓여서 먹는 溫水, 나무판자집 등이 특히 인상깊었다. 그간 조사한 360여가구의 결과가 대만대학에서 분석 정리되어 나오면 더욱 흥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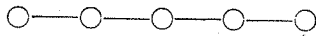


한국팀 전원

우리들의 조사활동은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서 8월 9일에 끝마쳤고, 그후 3일간은 觀光길에 올랐으며 대리석의 본고장 花蓮市를 지나, 絶景의 橫貫公路를 따라 臺中에서 二泊하면서 유명한 유원지 日月潭를 돌아보고, 臺北에는 8월 12일 낮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는 臺灣大學 및 病院, 미해군 열대의학연구소(NAMRU-II), 孔子廟, 中山博物館, 市內觀光등을 하였고, 13日 저녁에는 환송파티, 14日 저녁에는 本活動의 基金을 위한 世紀交響樂團의 자선음악회가 대만기독교

의사회(Dr. Kuo) 주최로 열렸으며, 한국팀은 15일에 무사히 귀국하였던 것이다.

그동안 대만의대의 陳拱北, 일본東大의 山本俊一 교수, 서울延大의 金命鎬 교수의 적극적인 지도와 이에 호응하여 우리 모두가 잠시나마 남을 위하여 숭고한 봉사정신에 입각한 형제애적 사랑을 실천에 옮겼던 것은 흐뭇한 일이 아닐수 없으며, 이는 오로지 하느님의 넓은신 은총과 뒤에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會員諸位先生의 끊임없는 기구의 덕분으로 알고 깊은 감사 를 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이번 활동에서 얻은 성과를 들면 우선 ① 국제적인 의료봉사를 통하여, 범기독교적 교회내 일치운동이 서로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겼다는 것과 ② 의학을 연구하는 의학생, 의료인간의 국제친선과 아울러 두터운 교분을 이룩하는 사랑의 가교를 이룩했다는 것이다. ③ 그밖에 우방국가의 농촌빈민 보건실태를 직접 보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보건실태와 비교, 또 지역사회 보전에 좋은 창의적인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④ 여러

은 대만산지인의 보건실태조사를 수행했다는 사실등이다.

그리고 몇가지 아쉬웠던 점은 ① 보다 치밀정확하고 여유있는 사전계획으로 조사활동 스케줄의 작성 및 배부를 미리했더라면 처음부터 당황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동적인 입장에서 또 그러한 숙소에서 고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② 더욱이 난아우부락민에게 사전통지를 했더라면, 또 그곳 부락민(대표)이나 보건소, 또는 면사무소 직원이 안내역으로 조금만이라도 협조해 주었더라면 우리의 survey活動은 보다 수월히 능률적으로 수행했을 것이다. ③ 일방적이 아닌 균형있는 건전한 아세아 범기독교보건실태조사 활동이 계속 발전하여 나가기 위하여는 우선 각 나라에서 많은 가톨릭 의료인 및 학생이 참여하여야 겠으며, 이르기 위하여는 국내에서는 가톨릭의사회, 가톨릭병원협회, 가톨릭교회 및 대학 가톨릭학생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유대가 필요하겠으며, 나가서는 우방 아시아국가의 여러 가톨릭의사 團體와도 횡적인 연락 및 호응이 사전에 이루어져서, 이를 후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

### —〈玉稿를 바랍니다〉—

본 “한국 가톨릭병원 협회지”의 보다 알찬 내용과 그 實效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會員들의 積極的인 參與를 위하여 投稿를 환영합니다.

1. 總說 : 病院의 諸般管理에 관한 내용과 本協會設立趣旨에 舍當한 내용(200字 원고지 10枚 內容)
2. 會員動靜 : 病院內 人事, 行事, 實績, 行事 및 施設擴張등 크고 작은 消息(원고지 2枚 內外)
3. 나의提言 : 建設의內容의 提言이던 무엇이요 좋습니다(원고지 3枚 內外)
4. 其他會誌에 掲載하여 會員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內容(원고지 5枚 內外)

보내실곳 : 한국가톨릭병원협회  
회지편집담당자 앞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1가 2}  
가톨릭산재병원 411호실}